

서울, 이제 살아있는 세계의 배움터로...

MetroLab - Seoul Global Exchange

송미경 meekyong@si.re.kr
세계도시연구센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 내 지역을 넘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 지역의 경제, 사회활동 및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계획은 쓸모가 없다.”

디아스 마사부리, 다르에스살람 시장

2013년 3월 뉴욕에서 출범된 메트로랩(MetroLab, 공식 명칭 : 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은 세계은행이 도시 간 배움을 장려하고 대도시 지역의 혁신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개도국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수한 도시 발전 경험을 수집하고 도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 특정 도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뉴욕, 뭄바이에 이어 세계은행이 주목한 세 번째 도시가 서울이다.

해외도시정책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손잡은 서울시는 이 행사를 위해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요 도시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4일간 서울의 핵심적인 7개 정책 - 도시계획, 도시교통, 전자정부, 도시경제, 수도권 지역간 협력, 도시의 싱크탱크, 수자원 및 쓰레기 관리 - 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인 상암 DMC와 하늘공원, 북촌 한옥마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청계천 박물관,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을 함께 둘러보았다.

메트로랩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반둥, 카라치, 뭄바이, 상파울루, 구아달라하라, 다르에스살람, 아크라, 아디스아바바, 나이로비 등 15개국 18개의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도시 관계자 109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렇듯 여러 도시를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에서 선정한 주제들이 대도시의 주요한 이슈들을 잘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울이 일구어낸 발전과 그 속에 담긴 대도시권의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의 발전, 그 원동력은?

김광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서울의 개발사를 현장성 있게 그려냈다. 그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 표현하며, 리더십, 근면성,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자원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중산층의 성장 등이 서울의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1960~1970년대 개발은 경직된 하향식 개발구조로 중앙 정부는 서울을 성장의 거점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를 추진하였다. 이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정에 맞춰 실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95년 자치권이 확보되면서부터는 특별 TF를 구성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개발과 투자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계획과 시범사업을 만들고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부실건설, 불법철거 등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희망을 가지고 근면하게 노력한 것이 오늘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리더십을 가진 자들의 근면성과 책임감, 배움에 대한 열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대도시권 계획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경험이 소개되었을까? 서울 사례로는 서울의 급격한 성장 관리 방안과 북촌 보존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울은 1950년대 전후 어마어마한 인구유입으로 사람들이 강변, 산과 길거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각종 오염과 질병, 쓰레기, 물 공급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0대 초 도시계획을 강제하였고 토지구획정리, 공공시설 확보, 고밀도 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오늘날 서울 주변 지역의 산세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심에 보행 중심의 공간 구조를 잡아갈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없으며, 당장 실행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계획과 타이밍이 완벽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의 또 다른 도시계획 사례는 북촌이었다.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 근대 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역은 1970년대부터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를 수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화, 자연재해로부터의 취약성 등의 문제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북촌 한옥을 보존하고자 서울시가 이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한옥에 대한 인식과 지역 분위기가 변화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북촌 지역이 관광지로 발전하고 상업화되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새로운 개발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촌 지역의 보존 정책은 오늘날 역사문화도시 정책으로 발전하여 서울의 보전 정책이 발전되고 진화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발표자 별로 아디스아바바는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에 중심지를 잘 만들어 삶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도시계획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파리는 파리지역의 수도권과 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5개로 나누어진 행정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심플한 광역 계획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바르셀로나는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고, 카라치는 파키스탄의 중심지로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 유입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는 등 서로의 도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교통

교통 부문에서는 상파울루, 나이로비, 다르에스살람에서 온 전문가들이 각 도시의 교통발전 정책을 설명하였다. 서울 사례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도시철도의 개발 과정과 서울의 교통구조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다준 BRT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TOPIS)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교통에 대한 주된 논의는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연계성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도력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광역 교통망 형성을 위한 상이한 행정권역 간의 협력도 도시교통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전자정부

전자정부는 과거 잘 사는 도시들만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르에스살람과 울란바토르는 개발도상국에 속한 도시지만 ICT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상태였다.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도시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자정부를 도입 중에 있다. 비록 재정 문제, 역량 부족 등 다양한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탄자니아는 2012년부터 전자정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정부의 투명성 확보, 시민 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서울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전자정부의 도입이 시민의 참여 확대, 정부의 투명성 확보, 행정 편리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주도로 만들어진 전자정부를 위한 세계도시정부협의체(WEGO)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툴킷(Toolkit)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전자정부 지원하고 있다.


도시경제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아크라, 반둥, 울란바토르, 파리, 서울, 인천이 각 도시별 경제 현황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아크라의 수산업이 주된 경제 기반으로 앞으로 제조, 금융, 보험, 교통, 관광 5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확보와 정부의 역량강화,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둥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대학가와 지식기반의 기업들이 모여 있다. 경제 구조도 약학, 하이테크, 관광, 군사물품 관련 제조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에 반둥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유치를 높이고자 자동차 공유, 도시농업, 와이파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창업, 교육 및 연구 클러스터인 '어드반시티(Advancity)' 건설 전략과 대기업을 중점 타겟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피카시티(Efficacity)' 정책을 소개하였다. 인천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서울의 변화에

다른 외부효과로서 인천의 발전에 대하여 언급하며, 오늘 날 복합 산업부문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지식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교통네트워크를 높이고 공원, 호텔, 의료, 보육 시설 등 비즈니스 및 생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은 경쟁력 확보의 전략으로 물, 교통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기타

대도시권의 행정권역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통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각 행정 권역별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고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노력, 지방 분권화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해소, 조율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도시의 싱크탱크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뉴욕, 구아달라하라, 서울이 각각의 연구기관에서 만들어 낸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다. 서울의 경우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에서 각각의 정책 비전을 함께 소개하여 더욱 의미가 높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나이로비, 반둥, 서울에서 수자원 및 쓰레기관리를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고 문헌

- World Bank News, 2014.5.12, MetroLab: Think Outside Your Boundary (Video Clip)
- World Bank News, 2014.5.12, Think Outside Your Boundary: Fast-Growing Cities Need a Metropolitan Approach